

도시농업 공간조성 공모 선정 쾌거

도내 유일 2년 연속…국비 8천8백만원 확보
공공기관 5개소 실내식물조경, 옥상텃밭 조성 추진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내부 그린인테리어

2020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진화대·감시원…취약지역 집중 관리



지난 달 31일 나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된 2020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발대식 모습

나주시는 지난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비상근무를 병행,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봄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대비 비슷하거나 높을(많을) 것으로 전망되나 포근한 날씨 속 산림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불발생과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건축물 화재 등 인위적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최근 관내 읍·면·동 현수막 게

2020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받습니다 다음달 13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방문 접수

나주시는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3일 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논 이모작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근간인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동

시대 총 21개소에 홍보 현수막을 등산객이 많은 금성산 숲길 등에 깃발 100점을 설치하고, 산불예방 방송을 매일 4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대 시민 산불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68명을 선발, 주요 숲길과 산불취약지역에도 배치한다.

시는 특히 나주대교 부근 산불진화헬기 계류장을 설치했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상시운영해 초동진화에 주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입산통제구역 16개소 (6,167ha), 등산로 중 산불위험이 높은 9개 구간(35km)을 폐쇄구간으로 지정·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을 목격한 시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공원과, 339-7222)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사료작물, 맥류, 잡곡, 서류 등이 해당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1천 m²이하인 농가, 농지전용 신고 및 협의 농지,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나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도시농업 공간조성’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8천8백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전국 11개 시·도, 23개 지자체에 2년 연속 포함됐으며 전라남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농식품부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은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실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영도시 농업농장 △실내식물 조경시설 △옥상텃밭 3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중에서 ‘실내식물조경시설(자연가든)’, ‘옥상텃밭’ 2개 유형에 선정됐다.

올해 국비 포함 총 1억7800만원을 투입해 시청,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기관 5개소에 대한 실내 식물조경과 옥상텃밭 조성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나주공공도서관, 농업기술센터 건물에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벽면녹화, 식물조경 등 실내그린인테리어 사업을 추진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녹색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미관 개선은 물론 실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통해 도시농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이와 더불어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한 빛가람 공원텃밭, 커뮤니티 가든, 학교텃밭, 그린스쿨·오피스 조성과 도시농업 관리사 육성 등을 통해 농업 가치에 대한 도시민들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강인규 시장은 “2년 연속 도내 유일의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농촌에 대한 가치 공감대 형성, 나아가 도·농 간 상생 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 빛가람 만평 - 능력의 한계

장승태 畵

